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마 22:41-46)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나 대담하다윗의 자손이냐이다”(42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 쉽고 시시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다윗의 고백, 곧 시편 110편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을 울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이들을 향해서 놀라운 반전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45절).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혈통적으로 보아 손주라도 함참 아래의 손주쯤 되는데 어째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46절)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마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을 크게 강조하며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 창세 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시므로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5-17).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 앞에서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요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지만 만군의 주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서있는 것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t is He Who came as the Son of David

(Matt. 22:41-46)

Jesus asked the Pharisees the following question. What do you think about Christ? Whose son is he? The Son of David, they replied” (v. 42).

Every Jewish person might know the answer to this question. Though the Pharisees thought that it was too easy and trivial question, Jesus mentioned David confession written by the emotion of spirit, that is to say, Psalm 110, and surprisingly threw the reverse question towards those who laid plans to trap Jesus.

“If then David calls him ‘Lord’ how can he be his son? (v. 45).

If then Jesus is David’s descendant, for his blood sake, he belongs to a much younger generation, but it is how he could confess “my Lord.” About this question, it is said, “No one could say a word in reply, and from that day on no one dared to ask him any more question.”

Of course Jesus is David’s descendant. He was born in this world by blood. Matthew greatly emphasizes that Jesus is David’s descendant and starts the book of Matthew, with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However, simply Jesus was not born by blood, but David’s confession of calling ‘Lord’ refers to God.

Because Jesus Christ, before Abraham,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exists, it is He who already exists in the glory with God, the Father.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 born of all creation.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e thrones or power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Col. 1: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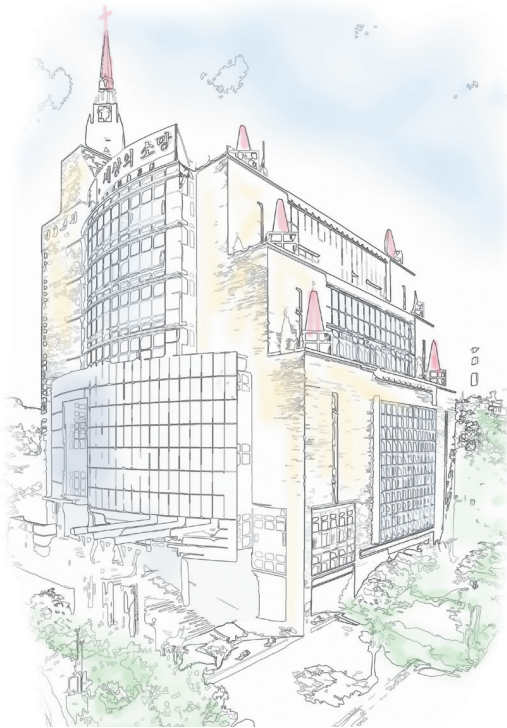
That is right. Jesus is God the Son. He is our savior, the creator God who deserves to receive praise and glory from us.

The Pharisees who were ignorant in spirit did not know whose front they stood in. They only saw the appearance of Jesus who was a son of poor carpenter, low born, Galilee Nazareth, and they never knew that they stood before the lord of hosts, almighty God, and the creator of universe.

My beloved Christians,

We never forget that God did not give any name of which we could be saved except Jesus Christ. Only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t is though Jesus who came to the world for us whom does not have any flaw or any sort of sins. He became the lamb of God for the atonement of all mankind’s sins and crucified on the cross and bled to death.

Whenever we attend a worship service for Jesus, we need to worship with all out heart, truth, and life. By meeting Jesu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get together in every day’s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주제 :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히 9:11-12)/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성금요일(4.3)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본당, 연합다락방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 30일(월)부터 4월 4일(토)까지, 오전 5시부터 본당에서 박노철 담임 목사를 강사로 열린다. 금년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히 9:11-12)으로서 히브리서 9장을 강해할 것인데, 구약의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

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지를 묵상한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열리는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바란다.

성금요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하며 금요기도회는 연합다락방으로 오후 8시부터 본당에서 모인다.

2015년 2/4분기 섬김위원 추가 임명

각 부서, 기관들은 오늘까지 제출토록

우리교회는 2015년 2/4분기 섬김위원을 추가로 임명한다. 각 위원회 및 부서에서는 2015년 2/4분기 섬김위원 진출자 명단 및 추가 임명자 명단을 오늘까지 기획위원회(위원장: 서문석 장로) 서기(송인권 장

로)에게 제출하기 바란다.

임명받는 이들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큰 역사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62)

(문 162) 성경은 전쟁이나 국가의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가요?

(답)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칼을 들었을 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26:52)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후10:4-5)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이 국가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나 사형 제도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천국시민생활 규범을 말씀하시는 중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과 옥리에게 내어주기 전 길에 있을 때 사회하라(마5:25)하셨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마 5:39)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롬12:17)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미5:16)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법과 질서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며 권세자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응을 하는 자라(롬13:1-4) 했습니다. 여기서 같은 투옥하는 것이라기보다 사형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울이 베스도의 보호 하에서 산헤드린 앞에 나타났을 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음을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행25:11). 이처럼 바울도 인간정부에게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노아 시대부터(창9:6) 사형 권을 주셨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마5:39)는 말씀을 국가나 인간 정부에 적용을 한다면 경찰이나 재판관 교도소와 같은 제도는 필요가 없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전체가 무법화 되고 무정부상태에 빠져 혼란에 빠지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열 마나 비유 끝에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셨습니다.(눅19:27) 그리고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였다고 하신 것은(눅20:16) 주님께서도 형벌제도 특히 사형 제도를 인정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민수기 35:31,33의 말씀처럼 살인자를 죽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구원을 위해 자기 군인의 직업을 버려야 한다거나 싸우는 군인제도를 폐지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뿐 아니라 바울도 전쟁을 하는 군인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합법적인 사형 제도는 살인과는 다른 것이며 반전론자(反戰論者)가 되거나 사형폐지론자가 되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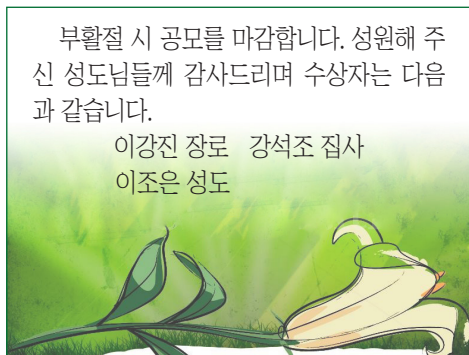
B.M.W.운동 동참합시다



부활절 시 공모 마감

부활절 시 공모를 마감합니다. 성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강진 장로 강석조 집사
이조은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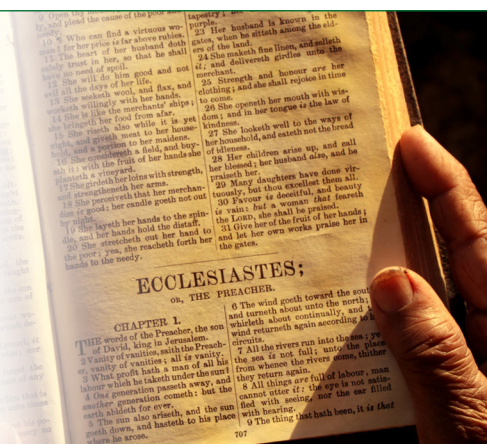
2015 하계 비전트립팀 팀원 모집

사역지 : 인도 나가나할리 교회
일시 : 8월 1일 ~ 8월 8일까지
지도 : 서준권 목사, 단장 : 박종권 집사
마감 : 3월 29일, 사무국으로



2015 전교인 성경임송대회

예 선 : 10월 11일(주) - 교회학교별
본 선 : 10월 16일(금)
범 위 :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3장





의료선교회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김봉배 집사 (의료선교부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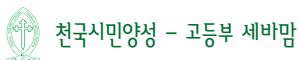
3월22일, 서울교회 의료선교부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직동교회로 농촌 선교를 떠납니다. 직동 마을은 원주민과 이주민이 반반씩 구성되어 있는데 교회에는 대부분 이주민이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민은 조선 시대 고관의 후손들로 집성촌을 이루며 유교와 무속신앙이 뿌리 깊은 곳으로 교회에 배타적인 분위기였으나 작년 여름 우리 교회

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치과, 한방과 진료와 초음파 무료검진, 수액치료 등 다양한 검진과 진료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미용팀은 마을 어르신들의 커트, 염색, 피부관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단 하루의 짧은 사역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재능과 노력을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청년부 선교사역을 통하여 원주민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목자 없는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선교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번 농촌사역에는 의료봉사, 이미용봉사, 마을잔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료선교부는 내과, 외



천국시민양성 - 고등부 세바맘

돼지 엄마와 세. 바. 맘.



“돼지 엄마.” 대치동에 와서 처음 듣게 된 단어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던 저희집에는 “엄마 돼지”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새끼 돼지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엄마 돼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꿀 꿀”거리며 떼를 지어 쫓아 다니는 모습을 보곤하였습니다.

그런데, 눈 한 핑 없고 돼지 우리 하나 없는 이곳 대치동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돼지 엄마”를 따라 다니는 “강남 엄마”들이 만들어 내는 풍경이랍니다. “돼지 엄마”란 “엄마 돼지가 새끼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듯 또래 엄마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엄마”를 가리키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 “돼지 엄마”는 최상위권 성적의 아이를 두고, 학원과 대학입시에 대한 뛰어난 정보력으로 강남 엄마들을 이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돼지 엄마”가 베풀어주시는 은혜로 들어가게 된 그룹과외를 위해 자녀들의 주일 아침예배를 과감히 생략하는 엄마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의 일그러진 형상을 바라 볼 때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이 아픈 가슴을 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바.맘.”(세상을 바꾸는 엄마들)을 시작합니다. “엄마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모임인 세바맘. 올 해는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양육하길 소망하는 엄마들과 함께 떠나는 7주간의 성경여행”입니다. 아기 돼지들처럼 누군가의 꿈무늬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베타 가슴과 열정으로 감당하며, 또 누군가의 가슴이 뛰게 만드는 글로벌 리더로 자녀들을 키우길 사모하는 엄마들을 초대합니다.

천세중 목사 (고등부 지도)



사순절의 기도 - 부활절 공모시 수상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강석조 집사 (16교구)

사순절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묵상한다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맘때면 나는 더욱 괴롭단다.
자꾸만 커져가는 내 손목 내 발목에 박히는
대못 소리 때문에

구원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되었다.

주일 날 열심히 찬양하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다.

설교 시간엔 아멘하고 외치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게 가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서하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나는 네게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단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세 번이었지만
네겐 벌써 몇 번째냐?

루터를 통해 내가 말했다.
너희는 믿음으로 내 안에 살고
사랑으로 이웃 안에 산다고.

바울을 통해 내가 말했다.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라고.
요한을 통해 내가 말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고.

이 땅에서 사랑할 줄 모른다면
천국에선 어찌 살아가려?

지금 내가 말한다.
서로 사랑하렴.

안디옥열방교회의 소망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무엇인가를 얻어 보려는 마음과 도움만 받으려는 마음에서 의정부의 안디옥열방교회를 찾아오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해서 저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그 주께서 일하신다는 '소망'을 붙잡고 달려왔던 2014년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주께서 허락하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저희 안디옥열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는 교인 모두가 외국인 무슬림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한국 토착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입니다. 한국의 다문화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한국 토착화(언어, 음식, 문화, 종교)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현상에 비하면 같은 외국인들이지만 여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강한 의지도 없으며, 한국 음식도 철저히 조심하며(무슬림으로서 돼지고기 등), 불법 체류자들로서 언제든지 다시 본국으로 강제 귀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적으로는 장기적인 제자 양육 체계를 갖기가 쉽지 않으며, 매 주일예배가 이들을 위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한된 설교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도 일하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일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귀하고 대견스럽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 계속되는 비밀 학습과 세례식들

올해도 예롤, 할릴, 을마즈 그리고 제밀 등 4명의 터키 친구들이 개인적인 학습과 세례식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개종이라는 생각은 그 배반 행위로 인식이 되고 있듯, 가족 친지들, 이웃, 후르캣, 마리아와 터키인 이젯, 투르고, 가족 친지들, 외무르, 엔 등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안에서도 큰 사건의이므로 서로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희들의 이 연례 행사는 2014년까지 총 21명이 세례를 받고 자울적이든 비자울적이든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디 이들이 한국에서 만난 예수님을 그 땅에서도 놓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꼭 필요하며

아울러 이들을 계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현지 교회의 지도자나 선교사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자(自)문화권에서도 타(他)문화권 선교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지금 국내에는 전 세계 미전도종족으로 잘 알려진 국가들을 포함해서 약 120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항공권을 사서 그 땅으로 가지 않아도, 또 어렵게 휴가를 내어 단기선교로 가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금 그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발로 들어온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 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에 모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주인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일할 때입니다.

2015년 1분기의 기도 제목들

1. 교육관, 게스트하우스, 행정실, 성경공부방들이 문화 안에서 등으로 활용할 공간을 위하여
2. 외국인 근로자들의 학습과 세례식을 위해-우즈벡 일흠, 후르캣, 마리아와 터키인 이젯, 투르고, 가족 친지들, 외무르, 엔 등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안에서도 큰 사건의이므로 서로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희들의 이 연례 행사는 2014년까지 총 21명이 세례를 받고 자울적이든 비자울적이든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디 이들이 한국에서 만난 예수님을 그 땅에서도 놓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김종일, 백순미 선교사

동 정

- 이중윤 원로목사는 28일(토) 장로교총회설립100주년 기념 표준주석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개인전 : 12교구 오영숙 권사 『독도사랑-수채화 초대전』 23일(월)-29일(주) 갤러리신상 (인사동) 02)730-6540
- 주일식당봉사 : 바울 선교회(3.22) 멜리아 선교회(3.29)
- 금주의 식사 제공 : 오경자 권사 가정 (희수를 맞아 감사드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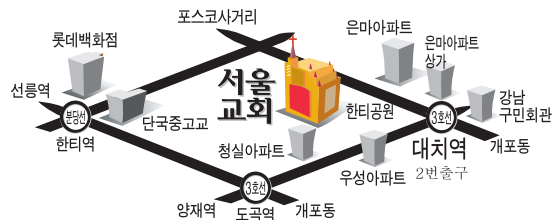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2. 다락방 리더 훈련을 통해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열정이 흘러 넘치도록
3. 제 37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숙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